

외국인력 취업지원 협의체 간담회 개최

전북중기청, 전북자치도·도내 대학 등 15개 유관기관 참석 취업연계 방안 마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전북중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 외국인력 취업지원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중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을 포함한 15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과의 취업연계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유관기관은 전북중기청, 전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전북도 교육협력추진단, 중진공 전북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경진원, 전북RIS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립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

원대, 전주비전대, 군장대이다. 전북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반면, 등록외국인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 생산인구는 2023년말 114만 8,456명→2024년말 112만4,944명→2025년 3월 111만7,529명으로 감소했으며, 도내 등록외국인은 2023년말 4만2,155명→2024년말 4만3,795명→2025년3월 4만 3,89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인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채용연계와 정착지원과 같은 유지전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공동교육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연계가 필요하며, 국내에 정착·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확대, 인턴 채용 시 인건비 일부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 등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클러스터 내 식품기업들은 인력수급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며 외국인력이 절실한 상황을 설명했고, 채용매칭 방안과 이들이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

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전북 외국인력 취업지원 협의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력의 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맞춤형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겐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도와주는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일자리 플랫폼(K-WORK 플랫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K-WORK 플랫폼(www.k-work.or.kr)에 회원가입하여 구인공고를 등록 후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바라며, 플랫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61-9820, 9452)로 문의하기 바란다. /오상근 기자

아까시꿀 바로 알고 먹어야 '꿀맛'

농진청, 국산 아까시꿀 바로 알리기에 나서

농촌진흥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시꿀 명칭 바로잡기, 정확한 기능성 정보 제공 꿀 등급제 소개 등 국산 아까시꿀 바로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까시아꿀로 불리는 국산 아까시꿀은 '아까시나무(Robinia pseudacacia)'에서 채밀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까시꿀'이다. 아까시나무는 아까시아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아까시나무'를 표준어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도 아까시꿀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은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되고 있는 베트남산 아까시아꿀과 국산 아까시꿀이 혼동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정확한 용어 알리기에 나섰다. 아까시꿀은 국내 벌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산 꿀이다. /오상근기자

은은한 향과 맑은 색, 부드러운 단맛이 조화로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농진청 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적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이 다른 수입 꿀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산 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꿀 등급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꿀 등급제도는 수분, 탄소동위원소비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1+등급, 1등급, 2등급을 관정하여 구분한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급과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국산 아까시꿀의 명확한 명칭과 기능성을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우리 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꼭 필요한 양봉 산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S-메트로컬 마켓' 참여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마을기업의 폭넓은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4~25일 총 2일간 'S-메트로컬 마켓'에 참여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2025년 현재 전북자치도 내 마을기업은 121개소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여한 S-메트로컬 마켓은 행정안전부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협업하여 마련한 기획전으로, 서울 압구정역(3호선)과 합정역(2호선, 6호선)사 내 유희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 제조한 "연잎차·밥 건강 에너지바, 프리미엄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3개소가 참여했다. 시식 코너 운영, 현장 판매,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본격 시행

실무 적응력 제고 위한 체계적 사전교육... 청년 취업경쟁력 강화 본격화

전주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직무교육은 전북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직장 내 기본 소양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이해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관계법 등 실무 중심의 기초 직무교육으로 구성되며, 청

년들이 인턴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수료 후 참여 청년들은 오는 6월부터 8주간 기업에서의 인턴형 일경험을 시작하게 되며, 활동기간 동안 최대 28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게도 기업지원금 등이 별도로 지급돼, 기업과 청년이 상호 부담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이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지역청년과 기업 간 효과적인 매칭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인정에 큰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권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상공회의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10인 이상 기업(또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산업진흥부 일자리지원과(063-280-1154)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세미나

전기안전공사, 사업자 27개사 참여... 관련업계 의견 수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화재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사업자 27개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제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설비 신고제도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방법 △충전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충전설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시설도 잇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차주들이 마음놓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해양 환경 보전 듣고·보고 체험하며 배워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바다의 날(5월 30일)을 맞아 28일 전남 나주 분사에서 사내 어린이집인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지점이 공동 기획한 이에스지(ESG)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

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과 수산물들이 이동하는 어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유유갑 등 폐자원을 재활용한 배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창주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지점장은 "농협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